

왕이 애통해 할 때

사무엘하 13-19장 (시편 3편)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처음 오셨거나 방문 중이시거나 친구의 초대로 오신 분이라면, 특별히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는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음악과 기도를 통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응답하는 시간을 번갈아 가질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다윗 왕이 시편 3편 8절에서 기록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께 속한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높은 곳에 서 있지만,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그분의 임재로 이끄시며, 마음 깊은 열망을 그분께 나누도록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살펴보고, 애통에 대해 배우고 표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찬양의 합성을 지를 준비로 오셨든, 고통의 비명을 지를 마음으로 오셨든... 마음이 충만하고 온전하다고 느끼든, 영혼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하든...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든,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든지... 이곳이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문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강한 얼굴과 미소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문으로 돌아가 그 짐을 다시 들고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길 구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십시오. 불현듯 어떤 감정이 나 생각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그분이 여러분을 아시며, 사랑받도록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필요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도록, 우리와 함께하시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잠히 하고, 내려놓고 받을 준비를 합시다.

1부: 애통과 가정의 고통

애통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서구권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다. Fuller 신학교 나 승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애통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예배적 응답이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끈다.” 고난은 인간의 삶에 당연히 포함된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

리는 항상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그분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드셨습니다. 애통은 공동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관계적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는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갑니다.

다윗은 애통을 일생 동안 표현해왔으며, 눈부신 성공과 참담한 실패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거절과 후회, 반역이 얹힌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 우는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가장 깊은 슬픔과 의문, 상실을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초대받습니다. 예배 중간중간 화면에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문구가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다윗은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저는 형제자매가 셋뿐이지만,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얼마나 성가실 수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녀들은 가정을 완전히 갈라놓을 지경이었습니다. 맏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욕망했습니다. 그는 속임수로 그녀를 제압한 뒤, 미워하여 쫓아냈습니다.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그녀를 거두며 암논에 대한 증오를 품었습니다. 다말은 즉시 "...머리에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사무엘하 13:19) 그 후 다말은 압살롬과 함께 살며 처량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훗날 압살롬이 자녀를 두었을 때, 그는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지어 누이에게 저질러진 악을 기억에 새겼고, 암논에 대한 증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격분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사무엘하 13:21-22)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다말에게 정의를 세우기 위해 무언가 조치가 취해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윗이 이 비극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암논은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집안에는 배반의 속삭임이 들려왔을까요? 분명히 가족 간의 사랑은 사라졌고, 아무런 행동이 없었던 것은 특히 아버지 다윗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당한 악행으로 인한 상처를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불의가 현재 속으로 기어 들어와 두려움이나 트라우마, 슬픔으로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고립시키며 요동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고통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애통함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애통해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해진 악을 탄식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문은 조용히 덮고 지나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증오는 속임수와 살인의 분노로 부풀어 올랐고 압살롬은 잔치를 꾸미고 암논과 모든 형제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암논을 죽이고 인근 나라로 도망쳐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압살롬이 도망하여 ...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

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삼 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다.”(사무엘하 13:37-39)

다윗의 가정은 회개하지 않은 죄와 고백되지 않은 분노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감정이 견잡을 수 없이 끓어올라 죽음과 버림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아들들을 향한 마음이 여전했고, 압살롬이 끼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애통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얼굴을 보려면 수년이 걸렸고, 그 가정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정의 붕괴는 애통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애통하는 시간이 2년이나 3년, 혹은 5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20년, 30년, 혹은 50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관계를 돌아보면 다양한 수준의 깨어짐이 보입니다. 갈등이 있고, 고통과 상실, 후회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할 수 있다면...”이라는 끊임없는 생각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슬픔은 깊은 상처를 냅니다. 여러분이 관계 붕괴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또는 했어야 했다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을 그분의 완전함으로 보시며, 여러분이 비어 있다고 느낄 때조차 여러분을 온전히 보십니다.

함께 애통을 드러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에 애통해합니다.

예배를 시편 3편 8절로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시는 이렇게 끝나지만, 실제로 다윗이 고난 속에서 구원을 외치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시편 3편 4절에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느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그의 가정을 위해 탄식하며, 비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찬송으로 예배하며 묵상하고 응답하려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탄식해 보십시오. 그냥 앉아서 가사와 멜로디를 들으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따라 부르며 이 진리를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음의 고통 때문에 모든 가사를 다 부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초대하십니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탄식으로 인정하십시오.

가정이 고통과 갈등 속에 있다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손길과 임재가 그 한가운데 임하도록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애통해 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 주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통 속에 말씀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십시오. 이것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이어가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간구합시다. 삶을 바꾸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함께 탄식합시다.

2부: 사회적 고통

압살롬은 3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지냈습니다. 그 후 다윗은 모사들의 설득을 받아들여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불러들였음에도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스스로 왕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기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사무엘하 14:32-33)

그러나 이미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겉보기에 화해한 듯 보였지만, 압살롬은 아버지를 멸시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왕위를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차피 그는 다음 왕위 계승자였고, 지난 5년간 아버지의 태도에 자신이 왕위가 위험하다고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는 잘생기고 머리카락이 길고 풍성하며, 매력적인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말솜씨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다윗의 가까운 모사들까지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충분한 지지를 얻게 되자 그는 일어나 스스로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적용될 만한 시를 썼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시편 55:20-21)

다윗은 반역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왕국을 갈기갈기 찢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압살롬의 살해 위협을 피했습니다. 혼란이 다윗을 뒤쫓았고,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 길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붙들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다른 지파 출신 이스라엘 사람이 그를 저주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무엘하 16:11-12) 다윗은 자기 집을 여호와께 맡기며,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분의 시선 밖에 있지 않으며, 그분의 긍휼의 돌보심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몇몇 사람들은 도시에 남아 교만한 압살롬에게 은밀히 조언하며 다윗을 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윗을 격려했습니다. 압살롬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 범죄하는 동안, 다윗은 상황이 어떻게든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애통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미 두 차례 언급한 시편 3편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다윗이 지었다고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 3:1-2)

다윗은 자기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압니다. 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깨어집니다. 사업 파트너, 가족, 친구들.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함께 애통함을 드러냅시다. 우리는 죄와 완고함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탄식합니다. 우리는 배신의 고통을 탄식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망쳤다고 해서 압살롬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언자들의 충고에 따라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다윗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다윗이 다스릴 자격이 없으며,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분열시켰고, 곧 땅에는 죽음과 파괴가 가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찢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고향에서 전쟁과 분쟁을 피해 이곳 캐나다로 피신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을 직접 겪었거나, 가족이 전 세계 여러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완고하고 사악한 마음들이 이기적 이익을 위해 죽음과 파괴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함께 애통함을 드러내봅시다.

우리는 분쟁 속에 갇힌 이들을 탄식합니다.

우리는 교전 속에서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친구와 가족을 탄식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죄의 얼룩을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는 것을 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출애굽기 3:7-8)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절망 속으로 들어오셔서 소망을 주십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은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시편 3:3)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연합과 인류의 조화라는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살롬, 곧 번영과 충만으로 되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애통함을 말해봅시다.

우리는 살롬의 상실을 탄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애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타난 죄의 결과를 애통합니다.

이제 또 한 곡의 찬양으로 묵상하려 합니다. 여러분 각자 필요한 방식으로 반응하십시오. 묵상하거나, 노래하거나, 듣거나, 울거나, 기도하십시오. 혼자 혹은 옆 사람과 함께. 함께 탄식합니다.

제3부: 개인적 고통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부하들을 맞서기 위해 울창한 숲으로 진격했다. 다윗은 직접 병사들과 함께 나가려 했지만, 그의 지휘관들이 그를 말려 뒤에 남게 했다. 그는 남았지만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사무엘하 18:5)

다윗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몰래 하지 않았습니 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잘 싸웠고 전세는 그들에게 유리했습니다. 곧 압살롬은 도주했고, 말에 타고 달아나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지휘관 중 하나인 요압이 다윗의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고 살해했습니다. 그의 시신을 내려 숲속 구덩이에 돌로 덮은 뒤, 두 명의 전령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마음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네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였더라. (사무엘하 18:32-33)

이는 다윗에게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는 승리를 축하해야 할 때였으나 — 나중에 그의 지휘관이 그를 일깨워 군사들을 승리에 결집시키게 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 대신 다윗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가족이 찢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왕국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다윗은 피흘림과 고통 속에서 울며 애통했습니다. 거짓 없이 날것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보존되었음에도 다윗은 탄식했습니다 —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필요로 했고, 다윗의 부하들은 지도자를 필요로 했다. 그래서 다윗은 조인을 받은 후 일어나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자비를 보이며 그들을 용서했고 왕권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슬픔이 우리를 압도할 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우리는 삶과 주변 사람들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함께 탄식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상실을 애통해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들을 애통해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애통해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과 두려움과 의심을 그분께 가져오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녹아들 공간을 주십니다. 우리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둠과 죄의 악, 생명의 상실을 대적하며 그분의 평화가 돌아올 틈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의 애통을 받으시는 분을 말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우리의 영혼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고통을 애통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의 애통을 깊이 묵상하며 몇 분간 침묵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몇 년 전, 저는 예수님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정말 크게 화가 났습니다. 1년간의 분쟁과 상실을 겪으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심각한 병까지 걸렸고, 병의 끝자락에서 주님께서는 저의 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제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상황이 당장 “나아

지지” 않았음에도, 주님은 저에게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손에 저를 맡기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회개했고 주님은 저를 용서하셨고, 저는 애통했고 주님은 저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의 것들을 가지고 함께 애통합시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여유를 드립니다. 몇 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4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망명에서 데려오라는 조언을 받을 때, 그를 찾아온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자라 땅에 쏟아진 물과 같아서 다시 거둘 수 없거니와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쫓겨난 자가 쫓겨난 자로 머물지 않도록 방책을 마련하신다.” (사무엘하 14:14) 그녀는 압살롬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도 압살롬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짙어진 슬픔과 우리에게 가해진 일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종종 추방자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길을 잃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를 압박하는 악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길을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 빛의 나라로 인도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 없이 살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33) 우리가 다시 찬양으로 예배할 때,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죽음과 멸망을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기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저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기이한 역설로 예수님은 압살롬의 자리를 대신하시어,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으로 상처 입고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우리가 소망과 치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살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주어지며, 그분이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분을 닮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모든 ‘이유’를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애통해하는 왕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고 집으로 데려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일어납시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면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기도팀에게 나아가 기도를 받으십시오.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면 방을 둘러보며 형제자매들을 살펴보십시오. 성령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시는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제들을 위해 애통하며 중보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가 시편 3편으로 시작했듯이, 시편 3편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분은 고통 중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히려 고통을 통해 더 자주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8절을 함께 외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예배가 끝난 후에도 잠시 더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먼저 떠나는 분들이 주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나가실 때 발걸음을 조심하시거나, 떠나기 전에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 카드를 작성하거나 기도 센터를 방문해 더 많은 기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유와 도움을 위해 교회 사역과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면 connect 카드를 작성하십시오. 혹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문 앞에 두고 오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함께 지고 사랑과 애통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서로를 주셨으니,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평안히 가십시오.